

테마칼럼

이성제

정지일

정태의

문화 향기

오승윤 화백과 나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 집 거실의 안방 입구에 걸린 고인의 화사한 꽃그림을 보면서 또 다한 생을 마감한 한 예술가의 외로운 넋을 달래본다.

오승윤 화백과 나의 첫 만남은 89년 여름, 내가 광주박물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마련된 현지 문화계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오승윤화백과의 첫 만남

그 뒤로 가끔 지산동의 초가옥과 근처에 마련된 화실에서 만나 친잔만만한 해설과 함께 그의 미술세계로 빠져들곤 했다.

이영훈을 정화시켜 주는 강한 흡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그의 작품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우리 사이의 대화와 함께 나는 그의 권유에 따라 잠시나마 승마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진 몇 차례의 개인전 등 현지 전시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갔고 이를 계기로 프랑스 화단의 많은 작가나 미술평론가들과의 교류관계도 폭넓게 펼쳐 나갔다.

진솔한 면모

내가 빠리 문화원장으로 있는 동안 현지에서 이루어진 몇 차례의 전시를 통해 오 화백과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의 여러 미술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오 화백의 또 다른 모습을 대할 수가 있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박한 北 미사일 정국, 한국 목소리 낼때다

의표를 찌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형 강행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미국은 이미 북의 미사일 발사 준비 태세를 흔히 꿰뚫어 보고 아차하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요격미사일을 가동할 태세였다고 한다.

지역국회의원·광주시장 不和, 한심하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열린우리당 광주시국회의원들과의 불화가 접미가경이다. '광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병경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난 5일 박시장 발언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 운반체계 무력시위가 보란듯이 벌어진 이 때 대한민국 정부가 주변 강대국에 정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사이드

발이데 한계가 있어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태반이다. 무엇보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고



백동원

오래 전에 한 외과의사가 쓴 의학 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 속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래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침제가 중천에 오르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음식이 부족하면 곧 불만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남긴 음식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부족해도 탈, 남아도 탈

그러나 진짜 황당한 경우는 본래 솜뭉치의 개수보다 오히려 하나가 남을 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병화 20개를 가지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을 끝내고 세어보니 21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과' 현상도 문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과', 이를테면 정열의 과잉 같은 것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요소다.

빗길 고속도로 감속 안전 주행으로 사고 예방해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잦은 비와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고속도로 운행 중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도중 측면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독자마당

대학생들 공중도덕 불감증 위험수위

최근 대학교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요즘 대학생들 버릇이 너무나 없다"고 했다.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창, 네티즌들 짜증 난다

인터넷에서 이곳 저곳을 접속하다보면 정 보가 아닌 광고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이른바 팝업(pop-up) 광고인데, 인터넷 시작 화면과 별도로 뜨는 사각형 창이다.

대중교통 이용시 다른 승객에 불편죄선 안돼

얼마 전 좌석 버스를 탔는데, 두 명이 앉아야 할 좌석에 짐을 놓아두고 있는 승객들이 많았다.

며 빈정대 뒤 나갔다는 것. 아주머니는 "괜한 말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후회를 했다. 괜한 말을 할 걸까. 담배 공초를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라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루 종일 나라간다. 이 때문에 접속률이 높은 사이트에 접속해 달게는 4, 5개씩 뜨는 팝업 광고를 지우다 보면 맥도 풀리고 짜증이 난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無等鼓

영국의 수학자 튜링(Turing Alan Mathison)은 컴퓨터의 원리를 제시한 천재 수학자다.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모두 42억9천946만7천295개의 숫자가 조합되어 있어 슈퍼컴으로도 133년이 걸린다는 주장이었다.

암호 해독

미국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1977년 개인용 컴퓨터 제조회사를 창업하면서 애플(Appl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승을 계산해야 풀 수 있으나, 천 교수의 기법으로 2의 50승 정도에서 가능하게 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